

# 한국인 첫 챔피언스 투어 우승 최경주 "19년 전 감동 그대로"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 투어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최경주(51)가 당시의 감동을 19년 전 PGA 투어에서 처음 우승했을 때와 비교하며 "또 해냈다는 감동이 들었다." 고 말했다.

최경주는 2002년 PGA 투어 컴팩 클래식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19년이 흘러 지난 26일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페블비치 골프링크스(파72)에서 끝난 챔피언스 투어 투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에서 다시 우승을 차지하며 또 한번 '한국 선수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최경주는 전날 경기도 여주의 페럼클럽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를 끝낸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19년 전 PGA 투어에서 처음 우승했을 때처럼 챔피언스 투어에서 우승한 뒤 느끼고 감동은 똑같았다."며 "최초라는 소식에 '최경주가 다시 해냈구나'라는 박찬 감동이 밀려왔다."고 뿌듯해했다.

만 50세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는 챔피언스 투어는 참가 조건이 까다로워 아시아 선수의 활동이 뜸한 무대다. PGA 투어에



▲ 경기 뒤 인터뷰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경주. 사진=KPGA

서 3,3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번 최경주는 생애 총상금 순위로 켈리파이 토너먼트를 거치지 않고 출전권을 받았다.

하지만 PGA 투어에서 21년 동안 8승을 거둔 최경주에게도 챔피언스 투어는 또 다른 도전이었고 만만치 않은 무대였다.

그는 "챔피언스 투어에 처음 6경기 정도 뛰었을 때만 해도 녹슬지 않은 선수들의 기량이 놀랐다. 그러면서 '우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지만 PGA 투어에 처음 진출해 '할 수 있을까'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1승을 하고 난 뒤 '또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로 8승까지 했다. 이번에도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우승하고 나니 자부심이 더 생기고 긍지가 느껴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선수 최초의 챔피언스 투어 우승으로 새로운 개척을 시작한 최경주는 남은 시즌에 대해서도 밝은 전망을 기대했다.

그는 "언젠가 앞으로 10년 동안 챔피언스 투어에서 열심히 뛴 거고 1년에 한번씩 우승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이제 그 목표 중 하나를 이뤘다. 두 번째 우승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대회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기대를 안고 준비하려고 한다."고 또 다른 도전을 약속했다.



▲ 지난 달 30일 경기도 여주 페럼클럽에서 열린 KPGA 코리아 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에서 아이언 샷을 하고 있는 최경주. 사진=KPGA

# 벤투호, '원정팀 무덤'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살아남을까?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이 이달 7일(이하 한국시간) 안산 와-스타디움서 시리아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 홈경기를 치른 뒤, 5일 뒤인 12일에는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난적' 이란과 4차전 원정 경기를 이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치른다.

지난 29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이란은 피파랭킹이 22위로 아시아국가들 중 가장 높다. 또한 현재 이란은 A조에서 유일하게 2연승을 거두며 선두에 올라있다.

한국은 이란과 역대 전적에서 9승 9무 13패로 밀리고 있다. 특히 원정 팀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아직까지 한국은 이란을 이겨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7번 격돌해 2무 5패를 기록 중이다.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로 극성스러운 홈 관중의 응원도 물론, 해발 1,2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경기를 펼쳐 이기기는 쉽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른 것은 2016년 10월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을 통해서다. 당시 한국은 전반 25분 아즈문에게 결승골을 헌납하며 0-1로 졌다. 이후 한국은 이란과

두 차례 홈경기를 치르며 설욕에 나섰다.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다. 홈에서도 이기기 쉽지 않은 상대를 부담스러운 원정서 마주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물러날 수는 없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지난 27일 열린 화상 기자회견서 10월 목표 승점으로 6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이란 원정에서 승리하겠다는 얘기다. 만약 이란에 패한다면 A조 1위로 올라서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2위 경쟁으로 밀려나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벤투호로서는 최소 승점 1이라도 확보해야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수월해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이란 역시도 완벽한 홈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점이다. 아자디 스타디움은 최대 10만여 명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이번 한국전에는 10분의 1수준인 1만 명의 홈팬들만 입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때와는 다르게 이란 관중들의 응원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벤투 감독은 시리아와 홈경기부터 유럽과를 포함한 최정에 멤버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 이란 아자디스타디움 전경. 사진=대한축구협회

통증 전문  
치료 병원

#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